



우리들의 자녀양육 다시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 대다수 엄마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한 삶 살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자녀의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에 목표를 두고, 걱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한다. 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들이는 물질과 심리적 정성과 노력은 각자 다르겠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에서 는 임시 문화를 비판하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소수의 엄마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록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믿음과 소신을 지켜나가기 가 쉽지않은 것이다. 성공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많은 불안과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준다. 어떻게 키우는가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 책임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 부모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면 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진다. 다음에 나타나 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며 주님 마음은 어떠 할까? 우리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실까?

- 어린 나로부터 각종 학원을 다니며 경쟁을 배우고 학업 성취 위주의 삶을 사는 아이들
-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부모들
- 일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각자 너무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부모와 자식들
-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든 마음을 갖고 사는 부모들
-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학원을 잘 보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 최저생계비 정도만을 벌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자식을 바라 보는 부모들 - 소신껏 자녀를 키우지만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질까봐 걱정하고 고민하는 엄마들
- 공부를 잘해서 편견이 사라지고 돈도 잘 벌지만,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이 글에서 자녀의 '성공적 삶'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모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또한 그 분들의 자녀양육 방식이 옳다 그르다 말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키우길 원하시는 지 알아려 보기를 원한다. 매우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더라도, 잠시 멈춰서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한 번 짚어 보면 좋겠다.

먼저 주님이 우리 자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한다. 아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지자는 말이다. 물론 나는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매일 매일 구체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 무슨 책을 읽히고, 몇 시까지 공부시키고 잠은 몇 시에 자게 하고, 무슨 학원을 보내고, 어떤 친구와 어울려 놀게 하고, 간식은 뭘 먹이고, 선생님께는 얼마나 자주 찾아가야 하고, 등. 이런 부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같은 질문은 할 여유조차 없어진다. 그러나 점차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자녀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각자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다. 부모는 자녀가 이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않은 않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기도(필요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돌봄과 직접 인 관 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런 근본 질문에 대한 고민과 기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녀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단지 스펙만 쌓으며 살아간다면 내버려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의 사명에 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담들을 주시리라 믿는다. 그것도 가장 선한 방향과 계획으로 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성공이다. 요즘 세상은 물질적인 부가 곧 성공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족 생활과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선 한 사람의 가치가 성격과 학벌, 자격증 등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유년기 아이들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길 목표로 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말

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까지 과열 경쟁에 합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려서 부터 많은 지적 자극을 받으면 똑똑해 진다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최근 허버드 대학에서 수행된 아동발달 관련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학습능력과 복 지감, 건강 등은 치한 환경과 경험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성장할 때, 학습능력 이 높아지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도 길러진다. 또 위험이나 두려움 없는 환경에서 타인들과 일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공부 를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의 지적인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 다. 어려서 얼마만큼 배우는가 보다 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심자기의 보혈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린 환경에서 어떻게 키워지는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 인 행복과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분이 없는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존재할 수 없고 허무할 따름이다. 또한, 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심자기의 보혈이 없



가족을 읽다, 가족을 위해 읽다

결혼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온전합니까?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자와 남자가 결혼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해서 한 건 아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 본 적 없는 같은 회사 동료일 뿐이었다. 그러다 술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한 번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임신, 여자와 남자는 고민하다가 '계약 결혼'을 한다. 일단 결혼은 하지만 1년 후 그 결혼을 유지할지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내용. 회사에는 결혼 사실을 모두 숨겼다. 하지만 비밀은 폭로되기 마련. 사실은 확인한 동료들은 늦은 축하를 해준다. 하나 그즈음 그들의 결혼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고 느꼈던 여자는 이혼을 결심한다. 위기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향한 자기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한다.

최근 종영한 주말 연속극 <오작교 형제들>의 내용이다. 단순히 '드라마니까'라며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내밀한 속내를 알게 해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온전히 행동하며 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할진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사는 경우가 가능하겠는가.



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는 민족도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요즘 가족학 심리학자들은 부부관계와 아동발달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가 아동의 복지감과 장기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의 행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많이 시켜도 좋은 건 아니라고 확신하다 보니 다른 것에는 별 관심도 없다. 그러나 부모들이 심한 갈등 속에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안정적이고도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한다. 물론 때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대처 자세다.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느끼는 심리적, 감정적 안정성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지만, 아동의 지적 능력과 복지감 및 건강 등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인제부터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행복과 자녀양육의 환경이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엄마들이 자녀양육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한다. 일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무엇을 해 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다. 자녀양육은 이런 문제 그 이상의 것이다. 한 개인이나 부모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부모가 부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매우 복잡하고 심세하다. 이 가운데 사는 부모들이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자녀양육의 문제를 단순히 부모-자식간 관계로만 보지 말자. 하나님의 관계 및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의 맥락으로 사고하게 된다면, 더욱 큰 주님의 축복이 가정과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 믿는다. ㉞



김정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런디쉬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필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